

# 문화복지 폭 넓혀 '삶의 질' 향상

## 신임 문화체육부 김 영 수 장관

—장관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 민정수석으로 계시면서 각 부처의 사안들에 대해 날마다 파악하고 계신 행정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펼쳐갈 문화정책을 들려주시지요.

### 문화·여가 기회 극대화

▲말씀하신대로 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업무내용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종교연합기구 등의 연합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종교계의 자율적 화합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문화부는 종교단체의 건전사업과 도덕성 회복운동 등 범국민적 관심 분야에 대하여는 종파를 초월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작년 한해는 경부고속철 건설과 관련, 경주등과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불



국사·석굴암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불교정보가 많이 보존된 경우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현재 경주등과 반대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부고속철 노선 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요.

▲경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는 천년 고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의 10%, 국가지정 사적지의 20%인 총 784건의 문화유적이 전 시

## 수요 인터뷰

을 직·간접으로 파악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문화정책은 국민이 문화 여가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하는 것이며 문화를 생활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부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올해를 '문화복지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해로 설정하고, 앞으로 즐겁고 활기찬 사회조성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종교간 자율화합 교량역...종교 자료실등 운영 '문화재훼손 최소화' 보존·계승으로 민족얼 고취

—우리사회는 종교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종교가 신장되고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화해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서도 갈등과 반목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무행정에 대한 방침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종교인구 중 불교가 49%, 개신교가 36%, 천주교가 12%, 유교가 1%, 기타종교가 2%로 나타나고 있는 등(94년 통계청 사회지표조사) 전형적인 다종교사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 종교가 서로 화합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과 적극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정부정책 입안 또는 시행시 자문, 검토, 건의 등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교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무행정 여건을 내실화 할 것입니다. 종교자료실을 신설 운영하는 등 종교현상관련 자료를 수집 정비하고 중무담당요원의 자질향상을 지원

지에 분포돼 있고보니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발하면 문화재 훼손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국제경쟁력 제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의 현재 입장은 경부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하되, 문화재 훼손은 최소화 한다는 쪽에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부는 그동안 각계의 여론을 수렴, 고도인 경우의 경관과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은 중요국책사업인 만큼 건설교통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년 역사의 뿌리 깊은 조상의 유업을 보존하고 오늘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문화적 과제라고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에 대해 관심도 큰데요. 예산책정이 사업 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96년 문화재관리 예산은 총 909억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경장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776억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 능 원 정비 사업비가 130억원, 고도문화권 정비사업비가 114억원, 시·도 단위문화재 보수지원 사업비가 334억원, 사찰소장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지원 사업비가 40억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가 68억원, 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타 사업비가 90억원입니다. 이와같은 예산으로 전국 6800여건의 지정문화재를 완벽하게 보존 관리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매년 예산의 대폭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투자가 장기적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주고속철 해법 찾기

—올해는 '문화의 해'인데요 문화계에 도 물량주의 상업주의화가 뚜렷해졌습니까.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전신적인 행사 중심보다 문화의 순수성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에 대한 기대도 큼니다.

▲올해 문화의 해는 지난한 행사위주보다는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해 슬로건처럼 국민들의 삶과 함께 발전하는 문화의 해가 되도록 사업의 기본방향을 문화의 세계화, 문화창작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는 별도로 우리문화의 세계화와 노벨문학상의 수상 기반을 잡을 예정입니다.

—2002월드컵 유치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애플리타 올림픽도 열려 금년 체육행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텐데요.

▲금년에 우리나라 체육계의 과제는 6월에 결정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국내 유치와 7월부터 시작되는 애플리타 올림픽 대회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이외에 금년도 체육정책은 국민복지 차원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년 국정에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영란 기자

## 나의 수행일기

망란자 (영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결국 남을 사랑만 남게 되었다. 열댓명을 앞에 두고서도 선생님의 강의는 시종여일하게 진지하였다. 그때 함께 공부한 이로는 나형수 해설위원, 윤호균 교수, 시인 주성운, 지정관, 박상길, 조요연, 박영자, 김영희 등이 있다. 홍정식, 원의범, 황성기, 홍영진, 황창오 선생님들께서도 돌아가며 사이사이 특강을 해주셨다. 이원명, 서용길, 차용부, 오형근 선생은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가끔 그곳에서 만나보게 되는 얼굴이었다.

일요일이면 친구들이 불러내는 미팅 약속도 마다하고 서툰 거부죄를 취하고 법당에 앉아 화두를 들어 보기도 했다.

"깃발이 나부끼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바람때문이다. 깃발때문이다.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움직임) 때문이다."

무언가 잡힐듯, 알듯 말듯한 것들이 머리속에서 깃발처럼 나부꼈다.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의 잠을 깨우는 그런 바람의 살랑거림이 좋았다. 무언가 없으리진 내부의 통로를 확 트이게 해

있는 심정으로 말을 잊고 지냈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타심통으로 관해 보셨는지 질문에 커다란 글자로 이렇게 쓰셨다.

"有求必有, 無求則無苦"  
이 여덟글자가 그때 내 가슴의 명을 관통시켜 버렸다. 마음속으로 무릎을 쳤다. 그렇다. 나는 여지껏 무엇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었던가. 손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 인타끼워 하기때문에 생긴 번민이 아니던가. 떠나갈 것들을 모두 놓아 버리면 아무 고통도 없을 것을 나는 거기에 너무 얽매어 있었던 것이다. 미망의 한 겹질을 벗고 나온 듯 눈앞이 원히 트이는 것 같았다. 아마 이때부터 나는 놓아버리는 습성을 익히게 되었던 것 같다. 억지로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버리는 쪽을 택해왔기 때

## '가지기' 보다 '놓아버리기' 공부 집안 파산...휴학...공무원...동대불교학과 편입

주는 것 같았다. 낯선 한문글자와 그속에 깔린 심오한 금강경의 오의는 쉽게 알리지 않았지만 빠지지 않고 말속에 참여하였다. 여담이지만 사모님(김종화선생님)께서는 청강하고 있는 내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다고 하셨다. 고개를 끄덕덕 열심히 무릎 쓰다가 또 끄덕덕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



문이다. 또 그렇게 된 데에는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도 함께 작용을 했던 것 같다.

1973년도쯤이던가? 스님께 불일이 있어 독실에서 나뭇배를 타고 진흙밭을 지나 봉은사 대래현으로 찾아가셨다. 스님은 진흙에 불어판 '어린왕자'를 걸어들고 계셨는데 "마침 버리는 주간"이니

이 방안에서 갖고있는 것을 무어든 골라보라"고 하셨다. 그때 모짜르트, 베토벤, 그리고 로망롤랑이 쓴 일서(日書) 몇권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보다도 "인도의 전 국민이 모든 걸 갖게 되었을 때 자신도 그 물건을 갖겠노라"고 한 간디의 말을 스님이 쓰셨는데 거기서 받은 감동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양분이 되지 않았나 싶다.

평소에도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는 힘든 고생을 끝내 감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저버릴일이 없는 사람처럼 꼴였다. 어머니는 내 눈치를 살피셨다. 철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부셨던 대학 3학년의 여름방학. 머리가 깨지도록 생각이 많았다. 어머니 모르게 휴학계를 제출해야 했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시험 부너고 교양지도계로 출근을 해야 했다. 열심히 해오던 <실용극장>의 연극활동도 그만두고 차를 나눠 마시던 남사친구들도 만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가시울타리를 쳐놓고 혼자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듯 아니면 의관에게 혼자 깊숙히 들어와 앉아

이 방안에서 갖고있는 것을 무어든 골라보라"고 하셨다. 그때 모짜르트, 베토벤, 그리고 로망롤랑이 쓴 일서(日書) 몇권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보다도 "인도의 전 국민이 모든 걸 갖게 되었을 때 자신도 그 물건을 갖겠노라"고 한 간디의 말을 스님이 쓰셨는데 거기서 받은 감동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양분이 되지 않았나 싶다.

평소에도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는 힘든 고생을 끝내 감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저버릴일이 없는 사람처럼 꼴였다. 어머니는 내 눈치를 살피셨다. 철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부셨던 대학 3학년의 여름방학. 머리가 깨지도록 생각이 많았다. 어머니 모르게 휴학계를 제출해야 했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시험 부너고 교양지도계로 출근을 해야 했다. 열심히 해오던 <실용극장>의 연극활동도 그만두고 차를 나눠 마시던 남사친구들도 만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가시울타리를 쳐놓고 혼자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듯 아니면 의관에게 혼자 깊숙히 들어와 앉아

**현대불교**

광고신청문의: 7 7 7, 3 3 3, 7 7 7, 1 1 1, 0 0 0, 6 6 6, 9 9 9, 7 2 3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해를 맞이하여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이자임 결혼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제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드립니다. 삼라만상이 불자님들을 향해 빛을 더하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며 부처님의 가피가 증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적인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느껴보며 최고의 만족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기회 속에...

결혼연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결혼예정자들은 자기자신을 되돌아보는 경이한 자세와 기다림의 미덕이 필수 요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남의 첫 느낌과 예감이 좋다면 가장 이상적인 훌륭한 궁합이 아닐까요?

받을 길고 써를 뿌리듯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진실한 자세로 서로의 취향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심세한 감각과 독점적 경지를 개척한 교감이 이루어진 정준남녀의 행복한 결혼의 쌍을 이루기 위하여 새해에도 열려 심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자임

대후,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함장 (법명: 無生心)  
농협온리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영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 출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료하고 집중력, 판단력, 정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력을 증대하며 선(善)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의 보석 옥산가 배움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목민증 99%, 심장질환자 92%, 뇌혈관질환 93%, 어지러움증 93%, 눈물 83%, 고혈압 77%, 관절염 76%의 놀라운 치료효과를 기록함.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장애, 한센을 대상으로 중환연속복용을 작용 시켜 임상실험 결과 목민증 84%, 목민증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2.17)

「春川産 白玉 眞玉」에 卓越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랜딩 백화점 지하상가 4구) 眞玉家 777-0105 眞玉空 主

### 장묘시설 및 임종 병원 시찰단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남골을 중심으로 하는 교계 장례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장례예식 봉사단을 발대하여 활동 중인 바, 관련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시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본 장묘업계 시찰 단원을 모집합니다.

참가대상: 불교계 남골, 장례식장, 남골탑, 묘원을 설치 운영하시는 스님, 신도 (또는 설치 예정자) 25명

방문시찰처: 동경, 오사카, 히로시마 소재 시설. (増上寺, 東京靈園, 青山葬務所 및 靈園, 히로시마 비하라 병원 등)

방문시찰기간: 2월 10일 (토) ~ 14일 (4박 5일)

신청마감: 1월 27일 (토)까지

방문시찰경비: 참가자 부담

신청접수 및 문의처: 사회복지재단 사무국 (02) 723-5101~2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